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은희^{1*}, 이은미²

¹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A Study on Eco-systemic Factors that Effect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Eun-Hee Lee^{1*} and Eun-Mi Lee²

¹Dep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²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229명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그리고 취업여부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 여부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남편의 학력과 국적취득여부가 그리고 개인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한국어실력과 직업훈련 경험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시부모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원조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The subjects were 229 married immigrant women who live in Ulsan city.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are the education level of husband, acquisition of citizenship, Korean language ability, job training experience, and the support of their parent-in-law.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increasi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are suggested.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eco-systemic factors, employment

1. 서론

결혼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체계가 변화해서 제 3의 하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1]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이 특히 언어 및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맺어지는 국제결혼일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과 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2].

최근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1990년 1.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4년 이후부터는 1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3]. 특히 2005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2007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대다수인 84%는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복합

*교신저자 : 이은희(leh@dongguk.ac.kr)

접수일 11년 11월 04일

수정일 12년 01월 04일

재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4]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도 15.5%가 된다는 사실[5]은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그런데 절대다수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동기가 경제적 이유[7]로서 이들은 결혼을 통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삶과 본국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8]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일해 남편과 시댁식구의 생활비를 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결과[10]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취업을 원하지만 실제로 취업한 여성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4.7%(OECD 발표, 2008)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문화·교육·복지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알선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005년도에는 209명의 구직등록 중 50명이 취업하였던 것이 2008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만에 벌써 구직등록이 1,606건이고, 이중 취업은 447건으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구직등록을 하는 결혼이민자는 급증했으나 이에 비해 여전히 취업자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11].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 양자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대처능력과 환경의 요구 간에 더 나은 일치를 이루려는 사회복지실천의 초점과도 부합되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12].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생태체계이론을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인간과 환경간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보적이고 상호적인 적응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태체계이론에서는 유기체를 환경과 분리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을 이분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수 있게 해준다[13]. 이처럼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복지

사가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세계의 모든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 상황에 적합한 관점, 모델, 방법, 기법을 사용하여 사정할 수 있게 한다[14].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어느 한 요인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다각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원조하기 위한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이들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임의 표본 추출 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한국어가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한국어가 서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국어가 가능한 연구보조원을 통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24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총240부의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11부를 제외한 229부를 분석하였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가운데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사회체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개인체계 요인은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한국어 실력, 직업훈련유무,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생활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1-매우불만족, 5-매우만족의 5점척도이고, 건강상태는 자신이 지각

하는 주관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로 단일문항이며 1-매우 나쁨, 5-매우건강의 5점척도이다. 한국어실력은 1-매우못함, 5-매우잘함의 5점척도이고, 직업훈련유무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는 '0',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처리하였다. 탄력성은 Neiger[15]가 탄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인생의 목적' 4문항, '통제력' 4문항, '자기 효능성' 4문항, '문제해결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적이며,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Alpha의 값이 .62에서 .84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체계 요인은 부부친밀도와 시부모지지로 구성되어있고, 이때 부부친밀도는 단일문항으로 1-매우불만족, 5-매우 만족의 5점 척도이며, 시부모지지도 단일문항으로 1-매우불만족, 5-매우 만족의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체계 요인은 단일문항으로 주변인들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1-매우 냉담, 5= 매우 따뜻한의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 여부로 미취업 '0', 취업'1'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만 연령), 학력, 국내체류기간, 결혼기간, 국적 취득여부(0=미취득, 1=취득), 월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특성		사례수	비율	특성		사례수	비율
계		229	100.0	계		229	100.0
연령	20대 이하	139	60.7	남편연령	30대	47	20.5
	30대	64	27.9		40대	137	59.8
	40대 이상	26	11.4		50대 이상	45	19.7
	Min=19, Max=53, Mean=29.80, SD=6.59		Min=30, Max=61, Mean=44.49, SD=5.90				
학력	중학교 이하	100	40.6	남편학력	중학교 이하	10	4.4
	고등학교	97	42.4		고등학교	165	72.1
	대학교 이상	32	14.0		대학교 이상	54	23.6
출신국가	중국조선족	11	4.8	결혼기간	3년 미만	85	37.1
	중국한족	21	9.2		3~5년 미만	63	27.5
	일본	14	6.1		5~7년 미만	41	17.9
	베트남	139	60.7		7년 이상	40	17.5
	필리핀	10	4.4		Min=2, Max=187, Mean=52.51, SD=38.09		
	캄보디아	13	5.7	자녀수	없음	42	18.3
	기타	21	9.2		1명	134	58.5
종교	불교	73	31.9		2명	40	17.5
	천주교	10	4.4		3명이상	13	5.7
	기독교	45	19.7	월소득	100만원 미만	14	6.1
	이슬람	2	0.9		100~200만원 미만	93	40.6
	기타	15	6.6		200~300만원 미만	89	38.9
	없음	84	36.7		300~400만원 미만	21	9.2
400만원 이상	12	5.2					
한국거주기간	3년 미만	81	35.4	국적취득여부	취득	114	49.8
	3~5년 미만	65	28.4		미취득	115	50.2
	5~7년 미만	41	17.9	취업여부	취업	29	12.7
	7년 이상	42	18.3		미취업	200	87.3
	Min=6, Max=260, Mean=54.20, SD=38.68						

3.2 결혼이민자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2].

1단계(모형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변인으로는 ‘남편학력’(β = 1.811, p = .008)과 ‘국적취득여부’(β = 2.026, p = .001)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고졸이하의 남편을 둔 경우에 비해 취업군의 포함될 가능성이 6.1

배 정도 높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할수록 취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7.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체류기간, 결혼기간 및 월 소득은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모형2)에서는 모형1에 개인, 가족, 사회체계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남편학력’(β = 2.662, p = .008)과 ‘국적취득여부’(β = 2.261, p = .013)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체계요인을 투입한 결과, 개인체계의 요인 가운데서는 ‘한국어실력’(β = 2.066, p = .011)과

[표 2] 로지스틱 회귀분석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변 수	모형1			모형2		
	B(S.E)	p	Exp(B)	B(S.E)	p	Exp(B)
인구사회학적특성						
학력(대졸이상)	-.122(.846)	.886	.885	-1.430(1.203)	.235	.239
남편학력(대졸이상)	1.811(.683)	.008	6.117	2.662(1.007)	.008	14.323
체류기간	.014(.010)	.143	1.014	.016(.011)	.562	1.007
결혼기간	-.008(.011)	.492	.992	-.014(.014)	.291	.986
국적취득여부	2.026(.632)	.001	7.587	2.261(.907)	.013	9.591
월 소득(300미만)	.901(.555)	.104	2.462	.558(.736)	.448	1.748
월 소득(300이상)	-.427(.787)	.587	.652	-1.989(1.231)	.106	.137
개인체계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809(.632)	.201	.445
한국어실력				.283(.590)	.632	1.327
직업훈련경험				2.066(.810)	.011	7.890
탄력성:인생의 목적				1.724(.693)	.013	5.609
통제력				-.470(.696)	.499	.625
문제해결력				-1.493(.803)	.063	.225
자기 효능감				1.192(.886)	.178	3.295
가족체계 부부관계						
시부모지지				.679(.461)	.141	1.971
				-3.20(.682)	.639	.726
				2.940(.959)	.002	18.912
사회체계						
주변인의 태도						
상수항				-.787(.601)	.190	.455
	-3.097(.729)	.000	.045	-7.445(4.763)	.118	.001
자유도(d.f)	8			20		
-2Log likelihood	105.922			73.487		
Model X ²	32.582(.000)			65.017(.000)		
카이제곱차이	-			32.435(.001)		
Nagelkerke R ²	.337			.599		
예측정확률	81.7%			91.6%		

주) 종속변수: 0: 미취업군, 1: 취업군
*p<.05, **p<.01, ***p<.001

‘직업훈련경험’(β = 1.724, p = .013)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실력이 1수준 증가할수록 취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약 7.9배 정도 높아지며, 직업훈련경험을 했을 경우 취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은 5.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및 탄력성의 수준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요인가운데서는 ‘시부모의 지지’(β = 2.940, p = .002)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부모의 지지가 1수준 증가할수록 취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약 19배 정도 높아지지만 부부관계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체계의 요인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원조하기 위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남편의 학력과 국적취득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한국어실력과 직업훈련 경험유무가, 그리고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시부모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구성된 사회체계 요인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 선행연구[16]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알선이 29.6%, 자녀양육지원 22.9%, 한국어교육 18.4%, 직업교육 14.1%등의 순서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을 원조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 가운데 시부모의 지지가 1단계 올라갈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18.9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 가운데 자녀양육지원이 22.9%로 취업알선 다음으로 높았던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연구[17]에서는 취업희망자들 가운데 50%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들었던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유추

되어진다. 즉 시부모가 자녀양육 등의 지지를 제공할 때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사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지지가 가장 필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동시에 고국을 떠나오므로써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인 원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단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남편을 비롯한 시댁 가족구성원들의 지지가 그들의 적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결혼전 준비 프로그램’에서 배우자 뿐 아니라 시부모 등 확대가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여성을 위한 중요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역할의 증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1단계 올라갈수록 취업 할 가능성이 7.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한국어 교육이 18.4%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성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을 하여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도 일상적인 대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취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심각한 사회적 박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5.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 14.1%가 취업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기술교육은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제과제빵, 마사지, 미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훈련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보유한 다양한 역량과 서로 다른 문화를 오가며 쌓아온 독특한 경험을 전제한 부분과는 거리가 있어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참여부족과 실제 취업으로서의 연계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이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의 실시와 함께 취업알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9.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거주 신분을 갖추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

성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간혹 남편들이, 아내가 국적 취득 후 결혼생활을 이탈할 것을 염려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도 많아 국적취득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어적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국적취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 등의 개별적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따르면 개인체계 요인에 속하는 탄력성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탄력성은 고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18]으로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취업에는 개인의 내적 속성인 탄력성 보다는 외적인 요인인 시부모의 지지, 직업훈련 경험, 국적 취득여부, 한국어능력 등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거주 결혼이민자 여성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이지만, 각 체계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조사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독립변인에 포함시켜 이들의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Song, Sung Ja, Family and Family therapy, Bubmunsa, 1995.
- [2] Lee, Eun Hee, Study on the Adapt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Family Stress: Application of the Resiliency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4(1), 2009.
- [3] Ju, Sung Hoon, The Problem and Reform Assignment of Multiculture Family Support Projec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Health and Welfare Support Policy of Married Immigrant, 2005.
- [5] Sel, Dong Hoon, Kim Hen Mee, Han Gun Su,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Stud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 Policy, The Future Human Research Association, 2005.
- [6] Lee, Eun Hee, Study on the Adapt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Family Stress: Application of the Resiliency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4(1), 2009.
- [7] Han, Gun Su, The Family Life, Conflict and Adaptation of Rural Area's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Cultural Anthropology 39(1), 2006.
- [8] Hong, Dal Agee, Chae Ok Hee, The Ca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Family Life and Conflict, Journal of Korean Life Science, 5(5), 2006.
- [9] Lee, Kum Yen, The Marriage and Family of Immigrant Women, Immigrant Laborer Support Association, 2003.
- [10] Social Welfare Union Fund-raising Society,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Multiculture Family Support Project Participant, 2008.
- [11] Yang, Ye Kyung, Lee Sen Ju, Choi Hoon Suk, Kim Sen Ha, Jung Hyek, Study of Community Recipience for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 [12] Son, Duk Soon,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2005.
- [13] Son, Kyung Hoon,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Kondongchae, 2010.
- [14] Son, Duk Soon,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2005.
- [15] Neiger, B. L., Resilient reintegration: Use of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1991.
- [16] Ju, Sung Hoon, The Problem and Reform Assignment of Multiculture Family Support Projec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
- [17] Kim, Kyung A, Study on the Employment Support Pla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Chungbuk Province,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University, 2009.
- [18] Fraser, M. W., J. M. Richman, and M. J. Galinsky,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23-137, 1999.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198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가족복지

이 은 미(Eun-Mi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관심분야>

사회복지, 교육복지